

# 혜안

바생바습 팀



## 1. 2022학년도 예시 문항에 드러난 평가원의 출제 의도

이번 평가원에서 공개한 2022학년도 예시 문항을 보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발문들이 눈에 보일 것이다. 또한, 생소한 발문들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출제 기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보였을 것이다. 이들의 출제 방향성을 하나하나 파악해보자.

1. 둘 이상의 학자(혹은 학파)의 견해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가?
2. 1번의 방향성과 엮어 한 학파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가?
3. 전제나 논거의 추론 능력이 있는가?
4. 주제 통합적으로 지문을 읽어나갈 수 있는가?
5. 글의 전개 방식과 정보 관계를 적절히 정리할 수 있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가?
6. 정보 간의 관계 및 조직과 구조의 파악이 가능한가?
7. 전후 관계의 추론 능력이 있는가?

각 방향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둘 이상의 학자(혹은 학파)의 견해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출제 방향성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하는 지문과 문제를 보고 확인해보자.

[2022학년도 예시 문항 첫 번째 지문]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줘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원자나 엑스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원론자는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A]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한편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력저력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뚜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 보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6.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은 할 수 있다.
- ②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 ③ 원자나 엑스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 ④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 둘은 다르다고 보았다.
- ⑤ 데카르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했다.

해당 문제의 ④번, ⑤번 선지를 보자. 위 선지들 하나씩 보면

### 선지분석

- ▶ 라이프니츠의 견해가 ‘물리적 대상이...’라는 견해에 부합하는가?
- ▶ 데카르트의 견해가 ‘언어를 사용하거나...’라는 견해에 부합하는가?

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였다. 물론 정답 자체는 ①번이었으나 각 학자의 견해가 선지에서 제시한 견해와 부합하는지를 물어 이들을 확실히 구분 정리할 수 있었는지를 두 선지로 물어본 문제이다.

이처럼 2022 예시 문항에선 각 학파가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떤 방식에 따라 봐야 할까? 이는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성취기준을 보면 알 수 있다.

###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 성취기준 해설 : ...선정한 내용들의 종합과 재구성 등의 독해 기능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이들을 엮으면,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을 파악, 비판하여, 선정한 내용들을 토대로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성취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해당 출제 방향성은 제시된 예시 문항과 성취기준을 함께 보면, 이전의 평가원 기출 문항들의 경우 지문에선 하나의 학파를 제시하고, <보기>에서 다른 학파를 제시하거나, 두 가지 학파를 제시하긴 하지만 매우 짧게 제시한 후 통념 비판의 구조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2022학년도 예시 문항을 보면, 지문 자체에서 두 가지 학파가 서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이들의 견해를 적절성 선지를 통해 물어, 정확하게 학자와 그 견해를 구분할 수 있었는지 묻는다. 이를 통해, 둘 이상의 학자(혹은 학파)의 견해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는가를 출제 방향으로 잡는다.

2. 1번의 방향성과 엮어 한 학파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출제 방향성인 ‘한 학파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가?’를 보다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하는 지문과 <보기> 문항을 보고 확인해보자. 해당 방향성의 경우, 문제보다는 지문에서 그 방향성이 드러나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지문이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에 집중하여 읽어보자. (※참고 : 지문과 문제는 서로 다른 지문에 해당됨.)

[2022학년도 예시 문항 첫 번째 지문]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①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줘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원자나 엑스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원론자는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A]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한편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력저력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 보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9. [A]에 드러난 동일론의 주장에 대해 이원론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뜻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동적인 측면만 따라할 뿐이고 사랑이나 두려움 같은 감성적 측면은 따라할 수 없다.
- ③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 ④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지 선택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행 시뮬레이션이 실제 비행의 모방에 불과한 것처럼 기계의 수학적 추론은 인간의 수학적 추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해당 문제의 답은 ③번으로, 동일론자와 이원론자는 각각 기계의 정신에 대해 동일론은 정신은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계가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이원론은 정신은 비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기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 혜안 - 2022학년도 수능의 미래

다. 이때 ③번 선지의 경우,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라고 제시했는데 이는 동일론의 주장이 아닌 이원론의 주장으로, 해당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보자. 이를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론자 : [A]의 내용

이원론자 :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동일론자 : 저는 기계가 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문제에선 이원론자가 동일론자를 비판한 내용을 다시 동일론자가 비판하는 문제를 내어, 보다 심층적으로 견해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묻고, 나아가 이를 서로 비판할 수 있었는지까지 확인하는 문제였다. 아래의 Tip 박스를 보고, 어떤 사고과정을 요구하는지 파악해보자.

### 해당 지문의 Tip.

이번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평가원이 어디에 집중하는가?’이다.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항목 중 하나인 ‘한 주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여, 제시한 지문이다. 수능이라는 시험의 성격상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지문에 제시된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정리하는 선지나 문항을 출제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이에 각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는 사고과정을 사용하여 논리와 세부논리 (혹은 근거)를 분명히 정리하자.

다음으로, 이번엔 2022학년도 예시 문항 세 번째 지문의 <보기> 문제를 보고, 해당 출제 방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2022학년도 예시 문항 세 번째 지문 문제 중]

32. <보기>는 뒷글을 읽은 발명 동아리 학생들이 새로운 충전기 개발을 위해 진행한 회의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부장: 충전기에 적용할 수 있는 충전 중단 방식이 지닌 장점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방식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부원 1: 최대 충전 시간 방식을 사용할 경우, 완전 방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하면 과충전 상태에 이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 부원 2: 전류 적산 방식을 사용할 경우, 충전 전류가 변할 때보다 충전 전류가 일정할 경우에, 추정된 충전 양과 실제 충전 양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부장: 충전 상태 검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부원 3: 충전 상태 검출 방식 중 전압 강하를 검출하는 방식은 여러 종류의 충전지를 두루 충전하는 충전기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부원 4: 충전 상태 검출 방식 중 온도로 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에서는 주변 환경이 충전지 표면 온도에 영향을 준다면 충전 완료 시점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 부원 5: 지금까지 논의한 방식은 모두 충전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없다면 과충전을 방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① 부원 1의 의견      ② 부원 2의 의견      ③ 부원 3의 의견      ④ 부원 4의 의견      ⑤ 부원 5의 의견

지문과 문제를 보면 눈치가 빠른 수험생의 경우 ‘뭔가 화법과 작문에서 토론하는 내용을 보는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제시된 2022학년도 예시 문항에선 이전까지의 평가원의 독서 파트 출제 기조와는 다르게 서로의 관점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구조를 보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문과 문제를 읽어보고 이에 대한 논거를 잘 정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성격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자. 이 또한 앞서 제시한 방향성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제 2015-74호) 성취기준**을 보고 파악할 수 있다. 확인해보자.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성취기준 해설 : ...이를 위해 내용의 중요도 평정,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분, 각 문단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 선정한 내용들의 종합과 재구성 등의 독해 기능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이들을 엮어서 생각해 보면,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구조가 서로 논박하는 구조임을 알아내고, 이에 따라 글에 드러난 관점을 제시한 내용들을 종합하고, 재구성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전제나 논거의 추론 능력이 있는가?

한편 이번 예시 문항의 첫 번째 지문에선 ‘이원론자와 동일론자’를 제시하며 이들의 논리와 그 근거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지문을 전개했다. 지문은 살펴보았으니, 이번엔 문제들을 어떤 형식으로 출제하였는지 살펴보자.

출제문항

- ▶ 각 주장을 한 학파들과 그 논거를 연결 지을 수 있었는지 묻는 6번 문항
- ▶ 맥락을 제시하며 던진 질문을 한 학파의 논거로 답을 하는 7번 문항
- ▶ <보기>의 상황들에 각 학파의 주장들을 연결 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 8번 문항
- ▶ 한 학파의 주장을 다른 학파의 주장으로 반박하는 9번 문항

이는 지난 평가원의 문항들보다 각 주장의 전제, 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들의 입장에 본인을 투영하여 다른 입장에 대해 반박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 제시된 논거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본다. 이러한 방향성이 제시된 이유를 성취기준을 통해 파악해보자.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이 둘을 엮어보면,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인 각 학파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논리를 서로 비판하게 하여 독자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주제 통합적으로 지문을 읽어나갈 수 있는가?

네 번째 방향성은 2022 예시 문항의 두 번째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지문을 보자.

[2022학년도 예시 문항 두 번째 지문]

(가)

춘추 전국 시대의 논쟁 주제 중 하나였던 음악은 진나라 때 저작인 ㉠『여씨춘추』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저작에서는 음악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표출되어 형성된 것이자 백성 교화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욕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를 거론하며 음악을 아예 거부하는 목자에 대해 이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라 비판하고, 좋은 음악이란 신분, 연령 등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략)

(나)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19세기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의 아름다움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음과 음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사단조’는 ‘사’ 음을 으뜸으로 하는 단음 계로 작곡된 조성 음악으로, 여기에는 제목이나 가사 등 음악 외적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7개의 음을 사용하여 음계를 구성하고, 으뜸, 딸림, 버금딸림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한다. 조성 음악의 체계는 17세기 이후 지속된 서양 음악의 구조적 기본틀이었다.

(후략)

이를 보면, 우선 2021학년도부터 다시 등장하였던 주제 통합형 지문은 모의수능과 수능 때까지 첫 번째 지문으로 등장하던 것이, 이번 두 번째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를 통해 주제 통합형 지문은 앞으로도 독서 영역에 녹아들어, 이곳저곳에서 보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성취기준과 그 해설을 확인해보자.

성취기준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 성취기준 해설 : 이 성취기준은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비판적·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 단순히 여러 글을 비교·대조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보면,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학습 형태를 알 수 있다. 결국 제시한 두 글의 화제는 하나이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이 글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화제를 우선 잡은 뒤, 각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이를 비판·통합적으로 읽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당연히 각 글을 정리할 수 있는 바른 사고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바른 생각과 바른 습관으로」에 제시되어 있으니, 본권을 학습하며 확인하도록 하자.

5. 글의 전개 방식과 정보 관계를 적절히 정리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출제 방향성을 보다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되는 지문과 문제를 보고 확인해보자.

[2022학년도 예시 문항 두 번째 지문]

(가)

춘추 전국 시대의 논쟁 주제 중 하나였던 음악은 진나라 때 저자인 ㉠『여씨춘추』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저작에서는 음악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표출되어 형성된 것이자 백성 교화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욕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를 거론하며 음악을 아예 거부하는 목자에 대해 이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라 비판하고, 좋은 음악이란 신분, 연령 등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전까지는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지만, 『여씨춘추』에서는 음악을 듣는 주체의 수준과 감성에 따라 동일한 음악이라도 상이한 느낌과 결과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감정을 가진 것처럼 음악에도 감정이 담겨 있다고 전제하고,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장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을 통해 감정의 표현이 적절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편안해지며, 생명 연장까지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여씨춘추』에 따르면, 천지를 채운 기(氣)가 음악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데, 음악의 조화로운 소리가 자연의 기와 공명하여 천지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인체 내에서도 기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다. 음악은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비롯되어 음양의 작용에 따라 자연에서 생겨나지만, 조화로운 소리는 적절함을 위해 인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좋은 음악은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가 적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에 대한 『여씨춘추』의 입장은 인간의 선천적 욕구의 추구를 인정하면서도 음악을 통한 지나친 욕구의 추구는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여씨춘추』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귀생(貴生)’의 원칙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적인 욕구에 따라 음악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생명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취사선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씨춘추』에서는 개인적인 욕구에 따른 일차적인 자연적 음악보다 인간의 감정과 욕구를 절도 있게 표현한 선왕(先王)들의 음악을 더 중시하였다. 그리고 선왕들의 음악이 민심을 교화하는 도덕적 기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19세기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의 아름다움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음과 음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사단조’는 ‘사’ 음을 으뜸으로 하는 단음계로 작곡된 조성 음악으로, 여기에는 제목이나 가사 등 음악 외적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7개의 음을 사용하여 음계를 구성하고, 으뜸, 딸림, 버금딸림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한다. 조성 음악의 체계는 17세기 이후 지속된 서양 음악의 구조적 기본틀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서양 음악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개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였다. 불협화음이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조성 음악으로부터의 탈피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음악들 중의 하나가 표현주의 음악이다. 표현주의는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예술 사조로서 미술에서 시작하여 음악과 문학 등 예술의 제 분야에 영향력을 미쳤다. 표현주의 예술은 소외된 인간 내면의 주관적인 감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려는 사조이다. 표현주의 음악의 주된 특성은 조성 음악의 체계가 상실된 것이며, 이는 곧 ‘무조 음악’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당시 쇤베르크가 발표한 음악 프로그램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처음으로 나는 지난 시기 미학의 모든 울타리를 부숴버렸으며, 사명을 띠고 한 이념을 부르짖는다.”

무조 음악은 12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다양한 불협화음을 다룬다. 대표적인 예는 쇤베르크가 1912년에 발표한 작품 ‘㉢달에 홀린 피에로’이다. 이 작품은 상징주의 시인인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에 수록된 50편의 시 중에서 21편을 가사로 삼아 작곡한 성악곡이다.

Rezitation



이 곡의 성악 성부는 새로운 성악 기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즉 악보에 음표를 표기하기는 하였으나, 모든 음표에 ×표를 하여 연주할 때에는 음높이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말하는 선율’로 연주하도록 하였다. 피에로로 분장한 낭송자는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풍자를 담은 가사를 읊는다. 또한 기악 성부는 다양한 악기 배합과 주법을 통해 새로운 음향을 창출한다. 이 곡은 무조적 짜임새를 기본으로 하여, 낭송조의 표현적 측면을 강조한 새로운 성악 기법과, 새로운 연주 기법을 시도한 색채적 음향 등을 통해 표현주의 음악의 특징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16. 다음은 (가), (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그 견해와 대비되는 견해를 제시함.·····㉠</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ul>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음악 작품을 예로 제시함.·····㉡</li> <li>○ (나)와 달리 (가)는 음악을 다른 예술 갈래와 비교함.·····㉢</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ul>

	㉠	㉡	㉢
①	적절	적절	적절
②	적절	적절	부적절
③	적절	부적절	적절
④	부적절	적절	적절
⑤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해당 문제의 답은 ②번으로,

- ▶ ㉠의 경우, (가)에선 『여씨춘추』와 대비되는 견해인 목자의 견해를 제시했고, (나)에선 표현주의에 대비되는 견해인 한슬리크의 견해를 제시했다. 따라서 적절하다.
- ▶ ㉡의 경우, (가)에선 특정 음악 작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나)에선 ‘달에 홀린 피에로’라는 작품을 제시했으므로, 적절하다.
- ▶ ㉢의 경우, (가)에서도 다른 예술 갈래와 비교하지 않았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이를 보면 이전과는 다른 발문으로, 지문 전개 방식 파악 여부를 **학생의 활동지 형식**으로 제시하여, 처음 보고 ‘어? 뭔가 좀 다르네? 이게 뭐지? 풀이법이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라고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풀이 방식 자체는 하나씩 차근차근 지문에서 제시되었는지 파악한 뒤, 이들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확인하면 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앞서 제시한 방향성들과 마찬가지로 성취기준을 보고 파악해보자.

###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 성취기준 해설 : ...이를 위해 내용의 중요도 평정,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분, 각 문단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 선정한 내용들의 종합과 재구성 등의 독해 기능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해당 문제의 발문은 이전까지의 문제들과는 다른 생소한 발문이었지만, 문제 자체의 해결 방식은 **글에 드러난 각 문단 내용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알아내는 것으로, 이전과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이해한 후 제시된 예시 문항에 성취기준을 엮어, 해당 출제 방향성을 이해해보자.

다음으로, 여섯 번째 출제 방향성을 확인해보자.

6. 정보 간의 관계 및 조직과 구조의 파악이 가능한가?

이전 평가원 문항에서는 <보기> 내의 한 명의 학자 혹은 학파에 관한 내용만 서술되어 있다면, 앞서 첫 번째 방항성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번 예시 문항에서는 두 명 이상의 학자 혹은 학파를 제시하여, 정보의 관계 및 조직이 복잡했던 구조를 띤다.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2022 예시 문항의 두 번째 지문에서 제시된 <보기> 문제를 확인해보자.

**[2022학년도 예시 문항 두 번째 지문 중]**-----

(가)

춘추 전국 시대의 논쟁 주제 중 하나였던 음악은 진나라 때 저작인 ㉠『여씨춘추』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저작에서는 음악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표출되어 형성된 것이라 백성 교화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욕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를 거론하며 음악을 아예 거부하는 목자에 대해 이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라 비판하고, 좋은 음악이란 신분, 연령 등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전까지는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지만, 『여씨춘추』에서는 음악을 듣는 주체의 수준과 감성에 따라 동일한 음악이라도 상이한 느낌과 결과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감정을 가진 것처럼 음악에도 감정이 담겨 있다고 전제하고,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장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을 통해 감정의 표현이 적절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편안해지며, 생명 연장까지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여씨춘추』에 따르면, 천지를 채운 기(氣)가 음악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데, 음악의 조화로운 소리가 자연의 기와 공명하여 천지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인체 내에서도 기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다. 음악은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비롯되어 음양의 작용에 따라 자연에서 생겨나지만, 조화로운 소리는 적절함을 위해 인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좋은 음악은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가 적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에 대한 『여씨춘추』의 입장은 인간의 선천적 욕구의 추구를 인정하면서도 음악을 통한 지나친 욕구의 추구는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여씨춘추』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귀생(貴生)’의 원칙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적인 욕구에 따라 음악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생명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취사선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씨춘추』에서는 개인적인 욕구에 따른 일차적인 자연적 음악보다 인간의 감정과 욕구를 절도 있게 표현한 선왕(先王)들의 음악을 더 중시하였다. 그리고 선왕들의 음악이 민심을 교화하는 도덕적 기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18. (가)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노자(老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실현하는 데 욕구가 방해가 된다고 보고, 현실 속 음악을 거부하였다. 그에게 최고의 음악은 우주의 근원인 도(道)의 모습을 닮아 거의 들리지 않는 음악이었다.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이상적으로 본 장재(莊子)는 노자와 같이 음악을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음악을 천지 만물의 조화와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음악이 인간의 삶에서 결여될 수 없다고 주장한 그는 의미 있는 음악이란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근본을 두면서도 형식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선왕(先王)들이 백성들을 위해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 ① 노자는 『여씨춘추』와 달리 인위적인 음악에 대해 부정적이었겠군.
- ② 노자는 『여씨춘추』와 같이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음악이 비롯되었다는 데 긍정적이었겠군.
- ③ 장재는 『여씨춘추』와 같이 선왕들의 음악에 대해 긍정적이었겠군.
- ④ 장재는 『여씨춘추』와 달리 음악에 대한 목자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겠군.
- ⑤ 장재는 『여씨춘추』와 같이 만물의 조화를 중심으로 음악을 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겠군.

해당 문제의 정답은 ④번으로, 우선 각각 <보기>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 노자

→ 현실 속 음악 거부, 거의 들리지 않는 음악

▶ 장자

→ 현실 속 음악 수용, 선왕의 음악 긍정

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정답은 2번 선지로, 처음부터 (가)에서 **목자에 대해 『여씨춘추』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제시했으므로 선지의 **『여씨춘추』와 달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이를 보고 처음엔 ‘와, 한 명 더 비교해야 하네? 또 정리해야 할 게 늘었구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자. <보기> 길이 자체는 이전 <보기> 문항들과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정리해야 하는 것이 늘어난 것이 아닌 노자와 장자로 세분화된 것일 뿐이므로, 막막해하지 말고 나누어 정리해보자.

더욱이 같은 지문에서 두 대상을 서로 비판하는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항을 출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와 해설을 보고, 파악해보자.

[2022학년도 예시 문항 두 번째 지문 中]

(나)

19세기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의 아름다움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음과 음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중략)

무조 음악은 12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다양한 불협화음을 다룬다. 대표적인 예는 쇤베르크가 1912년에 발표한 작품 ‘㉡달에 홀린 피에로’이다. 이 작품은 상징주의 시인인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에 수록된 50편의 시 중에서 21편을 가사로 삼아 작곡한 성악곡이다.



이 곡의 성악 성부는 새로운 성악 기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즉 악보에 음표를 표기하기는 하였으나, 모든 음표에 ×표를 하여 연주할 때에는 음높이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말하는 선율’로 연주하도록 하였다. 피에로로 분장한 낭송자는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풍자를 담은 가사를 읊는다. 또한 기악 성부는 다양한 악기 배합과 주법을 통해 새로운 음향을 창출한다. 이 곡은 무조적 짜임새를 기본으로 하여, 낭송조의 표현적 측면을 강조한 새로운 성악 기법과, 새로운 연주 기법을 시도한 색채적 음향 등을 통해 표현주의 음악의 특징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20. ㉠의 관점에서 ㉡을 비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표로 표시된 말하는 성악 선율은 주관적인 감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② 피에로 분장을 한 낭송자가 가사를 낭송하는 것은 음악 외적인 것이 개입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다양한 악기의 배합과 새로운 연주 기법을 시도한 것은 색채적 음향으로 무조적 경향을 깨뜨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④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따르는 것은 12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성 음악의 체계에서 벗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 중 일부만을 가사로 사용한 것은 전체 작품의 줄거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자.

㉠은 ‘음악의 아름다움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음과 음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한슬리크의 견해에 관한 내용이고, ㉡은 ‘달에 홀린 피에로’로, 무조 음악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한슬리크의 견해가 무조 음악의 견해에게 어떤 비판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해보면 음악 외부의 어떤 것(피에로 분장을 한 낭송가)에 의존한 것을 제시한 ②번으로, ‘당장 하나의 관점만을 파악하기도 벅찬데, 하나의 관점으로 다른 관점을 비교해야 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새로운 발문으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던 이 문제도 지문에서 제시한 관점들을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는 사고과정에 따라 해결**하는 풀이법을 사용한다. 이전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제시한 **‘특정 대상(문단)의 비교’**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22학년도 예시 문항은 많은 문제들이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을 물어보며, 읽어나가는 과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는 발문들만 살펴보자.

발문모음

▶ [2022학년도 예시 문항 첫 번째 지문]

5.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22학년도 예시 문항 두 번째 지문]

16. 다음은 (가), (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짚지은 것은?

21. 다음은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이다. 학생이 재구성하기 단계에서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22학년도 예시 문항 세 번째 지문]

32. <보기>는 윗글을 읽은 발명 동아리 학생들이 새로운 충전기 개발을 위해 진행한 회의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문항 중 4문항이 출제되어 1/40이 위와 같은 발문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에게 당혹감을 주었다. 이때 실제 성취기준 중 독서와 태도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보면,

성취기준

[12독서04-02]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

라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글 읽기를 강조한 바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문제들 모두, 이쯤 되면 눈치챌겠지만 선지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번째 지문의 21번 문제의 선지 하나만 확인해보자.

㉠ 두 글은 창작자와 감상자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음악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고 제시하였다. 감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주하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내용이 길지만, 확인해야 할 사항은 결국

선지분해

▶ (가)가 창작자와 감상자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음악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고 제시했는가?

▶ (나)가 창작자와 감상자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음악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고 제시했는가?

▶ 두 내용을 엮어서 뒤에 학생이 제시한 부분이 도출될 수 있는가?

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세 번째 부분은 대부분 주관이 섞일 수 있는 부분으로, 완전히 틀린 부분이 아니라면 보통 '맞겠지 뭐.'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다. 따라서 남은 부분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과연 학생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보단 전체적으로 지문을 정리하였는지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 간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며 지문의 전개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어가는 바른 생각을 가져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출제 방향성을 확인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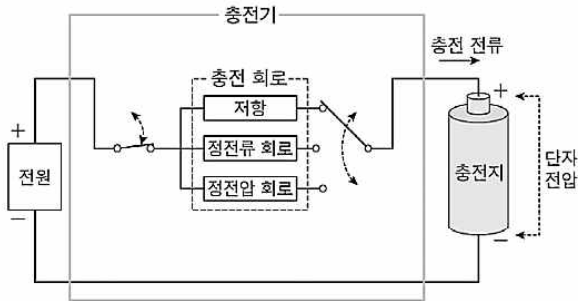
7. 전후 관계의 추론 능력이 있는가?

일곱 번째 출제 방향성은 '전후 관계의 추론 능력이 있는가?'로 잡는다. 이때 이와 관련 있는 지문인 2022학년도 예시 문항의 세 번째 지문을 보도록 하자. 이때 읽으면서 중점을 둘 포인트는 지문의 구조이다. 이를 생각하며 지문을 읽어보자.

[2022학년도 예시 문항 세 번째 지문]

충전과 방전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지는 충전기를 통해 충전하는데, 충전기는 적절한 전류와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충전 회로를 가지고 있다. 충전지는 양극에 사용되는 금속 산화 물질에 따라 납 충전지, 니켈 충전지, 리튬 충전지로 나눌 수 있다. 충전지가 방전될 때 양극 단자와 음극 단자 간에 전위차, 즉 전압이 발생하는데, 방전이 진행되면서 전압이 감소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단자 전압의 평균을 공칭 전압이라 한다. 충전지를 크게 만들면 충전 용량과 방전 전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전극의 물질을 바꾸지 않는 한 공칭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납 충전지의 공칭 전압은 2V, 니켈 충전지는 1.2V, 리튬 충전지는 3.6V이다.

충전지는 최대 용량까지 충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러한 상태를 만충전이라 한다. 최대 용량을 넘어서 충전하는 과충전이나 방전 하한 전압 이하까지 방전시키는 과방전으로 인해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전 양을 측정·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과충전 시에는 발열로 인해 누액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 니켈 충전지의 일종인 니켈카드뮴 충전지는 다른 충전지와 달리 메모리 효과가 있어서 일부만 방전한 후 충전하는 것을 반복하면 충·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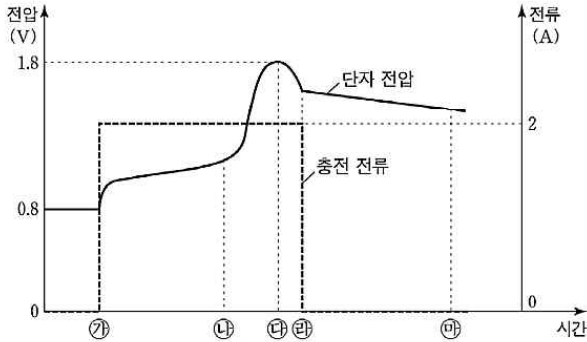
충전에 사용하는 충전기의 전원 전압은 충전지의 공칭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충전지로 유입되는 전류를 저항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충전지의 단자 전압이 상승하여 유입되는 전류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 충전기에는 충전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도록 하는 정전류 회로가 사용된다. 또한 정전압 회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회로에 입력되는 전압이 변해도 출력되는 전압이 일정하도록 해 준다. 리튬 충전지를 충전할 경우, 정전류 회로를 사용하여 충전하다가 만충전 전압에 이르면 정전압 회로로 전환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충전지에 공급하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충전지 내부에 리튬 이온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게 한다.

충전지의 ㉠만충전 상태를 추정하여 충전을 중단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최대 충전 시간 방식에서는, 충전이 시작된 후 완전 방전에서 만충전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충전 전원을 차단한다. 전류 적산 방식에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충전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여, 각각의 값에 측정 시간 간격을 곱한 것을 모두 더한 값이 충전지의 충전 용량에 이르면 충전 전원을 차단한다. 충전 상태 검출 방식에서는 충전지의 단자 전압과 충전지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여 만충전 여부를 판정한다. 충전지에 충전 전류가 유입되면 충전이 시작되어 단자 전압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간다. 충전 양이 만충전 용량의 약 80%에 이르면 발열량이 많아져 단자 전압과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만충전 상태에 가까워지면 단자 전압이 다소 감소하는데 일정 수준으로 감소한 시점을 만충전에 도달했다고 추정하여 충전 전원을 차단한다. 니켈카드뮴 충전지의 경우는 단자 전압의 강하를 검출할 수 있으나 다른 충전지들의 경우는 이러한 전압 강하가 검출이 가능할 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 단자 전압, 최대 온도, 온도 상승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측정된 값이 그 기준들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 과충전을 방지한다.

해당 지문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선 충전지의 충전과 방전의 반복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만충전 상태를 추정하여 충전을 중단하는 방식들을 제시하는 구조를 띤다. 이때 이에 대해 각각 충전 전류의 세기가 줄어드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충전 상태를 추정하는 과정을 각 방식마다 제시하여 지문의 전체 구조(문제점과 해결책)와 각 세부 내용들 모두 전후 관계를 제시하여 지문을 전개하였다. 한편 제시된 문제 또한 전후 관계를 정리한 부분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문에서 출제된 문제 중 하나를 확인해보자.

[2022학년도 예시 문항 세 번째 지문 33번 문제]

33. 다음은 어떤 충전지를 충전할 때의 단자 전압과 충전 전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자 전압이 공칭 전압 이하인 상태에서 충전이 시작되는군.
- ② ㉡: 충전 전류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고 정전류 회로가 작동하고 있군.
- ③ ㉢: 단자 전압이 최대에 도달했으므로 만충전에 이르렀군.
- ④ ㉣: 정전류 회로가 작동을 멈추고 전원이 차단되었군.
- ⑤ ㉤: 충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방전이 되고 있군.

해당 문제를 보면, 지문에서 제시한 해결책들의 전후 관계인 충전 전류의 세기가 줄어드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2번 선지로, 만충전 시 충전을 중단하는 방식들 중 충전 상태 검출 방식을 제시하며 만충전 상태를 추정하는 해결책을 3번 선지로 제시하는 등 이를 문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앞서 제시했던 성취기준들을 다시 보자.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성취기준 해설 : ...사실적 독해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내용의 중요도 평정,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분, 각 문단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이들을 엮어서 생각해 보면, 글에 드러난 정보(문제점과 해결책의 구조)를 바탕으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하며 읽어,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분을 통해 지문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글에 드러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평가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주 보였던 평가 기준인 만큼 '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지?'라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위 평가 기준들이 많은 곳에서 제시된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추가적으로 해당 지문은 과학·기술 지문의 지문 내용 구성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지문이었다. 앞서 제시한 충전기를 충전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완충 시 충전을 중단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문제점과 해결책의 구조'를 띠고, 문제 중,

[2022학년도 예시 문항 세 번째 지문 32번 문제]

32. <보기>는 뒷글을 읽은 발명 동아리 학생들이 새로운 충전기 개발을 위해 진행한 회의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부장: 충전기에 적용할 수 있는 충전 중단 방식이 지닌 장점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방식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부원 1: 최대 충전 시간 방식을 사용할 경우, 완전 방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하면 과충전 상태에 이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 부원 2: 전류 적산 방식을 사용할 경우, 충전 전류가 변할 때보다 충전 전류가 일정할 경우에, 추정된 충전 양과 실제 충전 양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부장: 충전 상태 검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부원 3: 충전 상태 검출 방식 중 전압 강하를 검출하는 방식은 여러 종류의 충전지를 두루 충전하는 충전기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부원 4: 충전 상태 검출 방식 중 온도로 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에서는 주변 환경이 충전지 표면 온도에 영향을 준다면 충전 완료 시점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 부원 5: 지금까지 논의한 방식은 모두 충전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없다면 과충전을 방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① 부원 1의 의견      ② 부원 2의 의견      ③ 부원 3의 의견      ④ 부원 4의 의견      ⑤ 부원 5의 의견

을 통해 해결책의 한계점 또한 재차 확인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역시 성취기준에서 엿볼 수 있는데,

성취기준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로 제시된 바 있고, 이를 학습하기 위해선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성취기준 해설 : ... 사실적 독해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내용의 중요도 평정,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분, 각 문단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

해당 성취기준에서 제시하는 **사실적 독해**가 필요한 것이다. 해당 성취기준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이젠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2.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드러난 2022학년도 수능의 미래

우선 주제 통합형 지문이 3번째 방향성에서 제시한 것처럼 2021학년도 첫 번째 지문으로 제시된 것이 아닌 두 번째 지문으로 제시되었고, 두 지문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닌 동양의 음악론과 서양의 음악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2022학년도 수능은 마찬가지로 서로 단순히 반대되는 내용이 아닌 **유기적으로 엮여있으며, 나아가 서로의 내용을 보충하는 양상**까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6번째 방향성에서 제시한 것처럼 **조금 더 학생들의 독서 태도에 집중한 문제들을 출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점점 지문에서 제시하는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지문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 문장 단위의 분석이 중요하게 되고, 이들을 엮어 어느 것을 중심으로 엮어야 하는가, 또한 그 속에서 특별히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 정보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를 중요 포인트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떠오를 가장 궁극적인 질문만이 남은 상태이다. 방향성을 알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위에서 살펴본 방향성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나타내자면,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를 지문에서 끌고 오는 방식과 이에 대한 추론의 범위는, **이제까지 평가원에서 냈던 방식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생소한 발문을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에 대해 당황하게 만들지만, 평가원에서 만드는 문제들은 결국 하나의 공식을 따른다.**

‘**답이 하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근거는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식인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3. 교재 「바른 생각과 바른 습관으로」에 대한 기본적 서술 방향성 및 앞으로의 계획

교재 「바른 생각과 바른 습관으로」에선 수험생들이 수능 1교시에 독서 지문을 대할 때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문장 단위의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Sentence], 지문에서 제시하는 정보들을 어느 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엮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Cleansing], 그 속에서 특별히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Case]와, 이를 사용하여 문제를 대하는 [Solution]을 제시한다.

그러나 책에서 제시하는 사고과정들은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만 추출·정제하여 이를 평가원의 5개년 지문들에 적용하여 제시한 것이다. 해당 지문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제시하는 지문 분석지와, 이를 토대로 어떻게 문제에 적용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해설지를 보고 필수적인 사고들을 익히고, 2021년 매월 제시할 월간지와 필요시에 부가적인 보충해설을 제시할 주간지들을 통해 이를 본인이 알맞게 체화하였는지 확인해보자.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선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질문을 해보고, 저자가 직접 참여하는 1대1 태도 분석, 실시간 스트리밍 강의 등을 통해 부가적인 부분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해보자.

지문을 읽어내는 바른 생각,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습관을 만들어주는 바생바습을 믿고 따라와 보자.

## 혜안 - 2022학년도 수능의 예측

저자 바생바습 팀.

집필 일자 2021.01.29

홈페이지 [rightkor.com](http://rightkor.com)

### 참고 자료 저작자 표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05)

2015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부 (2015.09)

본 문서에는 네이버 나눔글꼴이 사용되었습니다.

본 문서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문항 및 지문을 제외한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바생바습 팀에게 있습니다.  
외부로의 유출을 절대 금합니다.

바생바습 팀.